

 <p>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</p>	<p>보 도 참 고 자 료</p>			
<p>배 포 일</p>	<p>2020. 1.13. / (총6매)</p>			
<p>바이러스분석과</p>	<p>과 장</p>	<p>한 명 국</p>	<p>전화</p>	<p>043-719-8190</p>
	<p>담당자</p>	<p>정 윤 석</p>		<p>043-719-8192</p>
<p>고위험병원체분석과</p>	<p>과 장</p>	<p>이 기 은</p>		<p>043-719-8270</p>
	<p>담당자</p>	<p>강 병 학</p>		<p>043-719-8271</p>
<p>감염병진단관리과</p>	<p>과 장</p>	<p>이 상 원</p>		<p>043-719-7840</p>
	<p>담당자</p>	<p>김 갑 정</p>		<p>043-719-7848</p>
<p>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</p>	<p>과 장</p>	<p>박 혜 경</p>		<p>043-719-9050</p>
	<p>담당자</p>	<p>김 은 경</p>		<p>043-719-9064</p>

질병관리본부,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분석. 검사법 개발 착수

- 질병관리본부(본부장 정은경)는 WHO가 중국 우한시 집단폐렴의 원인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인함에 따라, 중국이 학계*를 통해 공개한 유전자염기서열을 입수하여 분석하였다.

* 중국 푸단 대학교(1.10.)

- 초기 분석결과는 **박쥐유래 사스 유사 코로나바이러스****와 가장 높은 상동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, **추가분석과 검사법 개발에 착수**하였다고 밝혔다.

* Bat SARS-like coronavirus isolate bat-SL-CoVZC45, 상동성, 89.1%

* 사람코로나바이러스 4종과 상동성 39-43%, 메르스 50%, 사스 77%

- 다만, 현 단계에서 이러한 상동성으로 사스바이러스와의 직접적 연관성 및 독성을 확정할 수는 없으며, 바이러스 분류, 감염력, 독성 확인하기 위해 심층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.